Monday, Sept 14, 2020 (2020-36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연준의 전략 변화로 다른 중앙은행들 '난감'
  - ◇ (초점)-아꼈던 '양적완화' 카드 꺼내든 한은..채권시장 최대 변수 되나
  - ◇ (외환시장 변혁기 ①-③)-원화 전자거래 시발점 API 도입 논의 본격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우려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미시건주에서 유세 도중 마스크를 조절하고 있다. (로이터/리아 밀리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1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6.9	0.2%	-2.6%	-3.5%
100엔 대비	1,118.7	-0.1%	-5.0%	-4.4%
유로 대비	1,407.1	-0.1%	-8.1%	-1.3%
위안 대비	173.77	-0.2%	-4.6%	-2.4%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코스피	2,396.69	1.2%	9.1%	7.7%
코스닥	888.44	2.6%	32.6%	-0.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3Y	0.926%	-0.3bp	-43.4bp	-45.7bp
국고채 5Y	1.228%	0.3bp	-25.2bp	-40.4bp
국고채10Y	1.530%	0.3bp	-15.3bp	-26.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유가(WTI)	37.33	-6.1%	-38.9%	34.5%
금(현물)	1,941.50	0.5%	28.0%	18.3%
TR상품지수	2,448.05	-0.1%	-1.5%	4.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유로	1.1845	0.1%	5.7%	-2.3%
엔	106.14	0.1%	2.3%	0.9%
위안	6.8338	0.2%	1.9%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665.64	-1.7%	-3.1%	22.3%
나스닥	10,853.55	-4.1%	21.0%	35.2%
S&P500	3,340.97	-2.5%	3.4%	28.9%
MSCI APxJP	561.03	-0.8%	1.5%	15.8%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미국채 2Y	0.129%	-1.8bp	-143.2bp	-93.7bp
미국채 10Y	0.669%	-5.2bp	-124.1bp	-78.1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한국 5Y	22.2bp	0.1bp	1.1bp	-17.0bp
일본 5Y	15.6bp	-0.3bp	-2.2bp	-4.0bp
중국 5Y	35.8bp	1.7bp	5.1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 월 14 일(월)>
- 기재부,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11:00)
- 금감원, 상반기 카드사 영업실적,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12:00)

<15 일(화)>
- 한은, 8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전망 수정 발표(10:30)
- 금감원,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12:00)
- 한은, 2 분기 기업경영분석(12:00)
- 한은, 8/26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6 일(수)>
- 국회 대정부 질문

<17 일(목)>
- 기재부,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1 차관 브리핑(10:30)
- 한은, 8 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18 일(금)>
- 기재부, 부총리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영상)(09:0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영상)(11:00), ADB 연차총회(영상)(15:00)
- 기재부, 2 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 월 14 일(월)>
- 중국, 8 월 총 통화(M2) 공급 증가율・위안화 신규대출 (11-17 일)
- 중국, 8 월 외국인직접투자 (14-21 일)
- 일본, 9 월 로이터 단칸 DI (08:00)
- 중국, 8 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7 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7 월 산업생산 (18:00)

<15 일(화)>
- 호주, RBA 9 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10:30)
- 중국, 8 월 산업생산・소매판매・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미국, 9 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8 월 수출・수입물가 (21:30)
- 미국, 8 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연준 FOMC 금리결정회의(16 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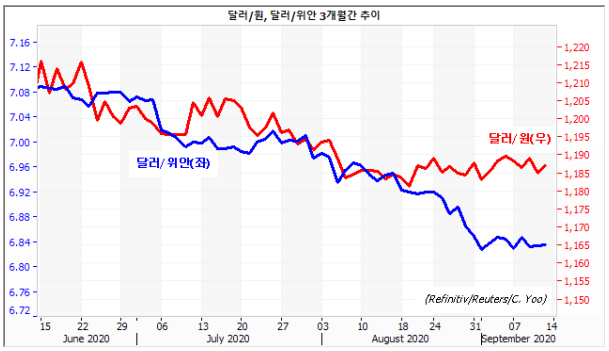
<16 일(수)>
- 일본, 8 월 수출입・무역수지 (08:50)
-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17 일까지)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8 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7 월 기업・소매재고 (23:00)
-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OECD G20 경제 전망 발표

<17 일(목)>
- 미국, 연준 FOMC 금리 발표 (03:00),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03:30)
- 일본, BOJ 금리발표
- 영국, 영란은행 금리발표・통화정책회의록 공개 (20:00)
- 미국, 8 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18 일(금)>
- 일본, 8 월 CPI (08:30)
- 미국, 2 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9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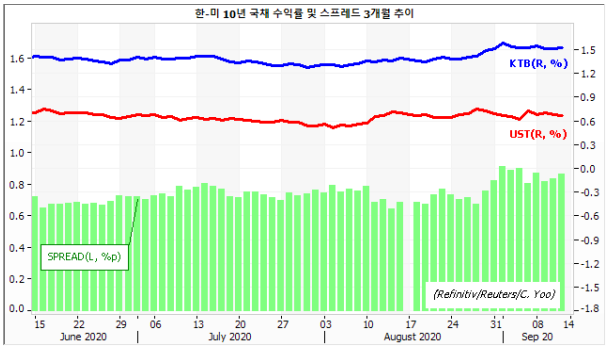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 상황과 주식시장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하며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1186.0 원에 거래를 시작해 아래로 3 원, 위로 5 원 남짓 범위에서 거래된 끝에 주간으로 3.6 원 하락했다.
- 이번 주에도 17 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좁은 범위에서 그날그날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큰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완화적인 정책 지속을 확인해주느냐에 관심을 쏟고 있다.
- 미국 통화정책 이외에 미국 대형 기술주 주가 변동성도 여전히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기술주 급변동이 오래 기다려 온 건전한 가격 조정에 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주 후반 옵션 만기를 전후한 가격 변동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가 더욱더 누그러들 수 있을지가 역시 관건이다.
- 이 밖에도 주 중반 발표될 중국 경제지표와 그에 대한 달러/위안 환율 반응,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잡음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동향 등도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초 국고채 10 년물 입찰을 기점으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대내외 주가 움직임과 국채선물 월물 교체 이후 외국인 동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0 일 정부는 총 7 조 8 천억원 규모의 4 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국채 7 조 5 천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 천억원으로 충당한다.
- 한국은행의 조력과 함께 추경 물량은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물량 확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줄어든 만큼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운용의 묘에 달렸다.
- 시장참가자들은 일단 분기말, 그리고 10 월 국고채 입찰까지를 고비로 볼 듯하다.
- 분기말을 넘어가면 다시 국고채 3 년물, 10 년물 입찰이 기다리고 있다. 3 년물과 10 년물 입찰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시장의 불안감 해소가 달렸다.
- 대외적으로는 나스닥 등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 별다른 헤지 없이 옵션 투자 비중을 올해 초 30% 수준에서 최근 45% 수준까지 올린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주에도 나스닥 등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4 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18 일까지 4 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 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밝힌 것 이상의 시장안정책을 꺼내놓을지 주목된다.

(분석)-연준의 전략 변화로 다른 중앙은행들 '난감'

프랑크푸르트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전략 변화는 앞으로 수년간 달러 가치를 압박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면서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다른 주요 중앙은행 정책입안자들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27 일(현지시간)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두 가지 골칫거리를 안겨준다.

먼저 연준의 임무에 대한 이번 재해석은 사회적 정책으로의 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년간 비전통적 움직임을 보여준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 달러 약세로, 이는 유럽 및 아시아 내 수출 국가들에게 타격을 준다.
수출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때 타격을 입는다. 또한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들 간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이미 짓눌리고 있는 가운데 통화 강세는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난 3 월 중순 이후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지수는 10% 이상 하락해 2 년여래 저점까지 내려갔다. 이에 지난주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달러 환율이 통화정책에 있어 중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환율이 이미 유로존의 성장률을 0.2-0.4% 깎아내렸을 수 있으며,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은 달러 가치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현재 ECB 와 BOJ 모두 초완화 정책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

ECB 와 BOJ 모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며 수익률은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다. 또한 자국 내에서 추가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현 다이이치생명 리서치 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 BOJ 관리였던 구마노 히데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달러/엔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준의 정책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상 BOJ 는 추가 마이너스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는 엔 강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ECB 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목표치를 유연하게 잡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재임하는 8 년 동안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브느와 꾀레 ECB 집행이사는 "이머징 시장 국가들은 적어도 초기에는 혜택을 볼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의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해 자국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정치적 거리두기?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연준의 목표는 또 다른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 정책에 있어 연준의 역할이 커지고 연준의 권한을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와카타베 마사즈미 BOJ 부총재는 "개인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일자리와 소득 조건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 역시 라가르드 총재가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매우 크며 ECB 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관리들은 선출된 관료들도 아니고 기후 변화나 불평등 퇴치는 정치로의 진출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중앙은행들을 정치적 공격에 노출시켜 이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리스크가 있다.

ECB 는 자신들의 권한 속에 이미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경제 정책"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ECB 의 초점이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연준의 방향 전환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달러 환율이 낮으면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성장이 가속화되고 수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장기 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모두 상승해 수년 뒤 정책을 정상화하기 쉬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일지는 몇 년 동안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중앙은행들은 달러 약세에 대응해야 한다.

(초점)-아꼈던 '양적완화' 카드 결국 꺼내든 한은..내년까지 채권시장 최대 변수 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총 5 조원 이내에서 매달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결국 양적완화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양적완화 카드 꺼내든 한은

한은은 지난 4 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발표하며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은이 내놓은 유동성 공급 정책은 진짜 양적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였다.

양적완화란 결국 시장이 정부의 국고채 발행물량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월 정례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하겠다는 한은의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양적완화 선언인 이유다.

한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의미의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 정책에 집중했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보고 아껴둔 것이다.

물론 한은은 금리 변동폭이 커질 때마다 시장안정용 국고채 단순매입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단순매입을 한다'는 한은의 시그널은 단순매입의 기준이 되는 '변동성 확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

한은도 시장도 변동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이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하자 한은이 바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지만 입찰 이후 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한은이 아꼈던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 카드를 꺼내든 건 이같은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발표가 4 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량 확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국채를 사주면 그 돈으로 시장에서 늘어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발표의 목적"이라며 "4 차 추경 물량 7 조원 이상이 앞으로 두 달 동안 풀리는 상황에서 시장의 독자적인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채 단순매입을 가급적 월말에 한다고 했는데 국채 입찰 일정은 가급적 피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 양적완화 카드, 내년 채권시장 최대 변수 될 가능성

시장에선 한은이 사실상 양적완화의 첫발을 내디딘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이자율 딜러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채권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모두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이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ing) 문제를 거론하며 실질적인 양적완화 도입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한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은이 양적완화 카드를 아껴두려 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금통위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결국은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결국 양적완화의 길에 들어선 만큼 국고채 정례 단순매입이 내년 채권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채발행 한도가 172 조 9 천억원으로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평년 국채발행 규모(100 조원)보다 70% 이상 급증한 만큼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한은 입장에선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내년 경기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데다 엄청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이 채권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이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안전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변혁기 ①)-원화 전자거래 시발점 API 도입 논의 본격화..왜 지금?

※ 이 기획은 총 3 건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심한 몸살을 앓았던 국내 외환시장이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자 잠시 잊혔던 시장 거래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화의 전자거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대한 논의다.

API 란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다.

외환시장의 경우 각 중개사의 시스템을 통해 받은 실시간 데이터를 은행들이 활용해 대고객 시스템에 제공하고,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이를 통해 실시간 호가를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다. 한편, 대고객 거래로 발생하는 은행들 포지션은 자동으로 헤지되거나 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된다. 아울러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 기법이 이 과정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지난주 몇몇 시중은행과 외은 지점, 중개사들에 API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설문조사에 나서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알렸다.

▲ 왜 지금?

서울 외환시장의 API 도입은 거래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따금 거론됐던 주제다. 그렇다 보니 일부 은행을 비롯해 외환 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외 시장 상황과 국내 기관들의 인식 수준 및 시장 여론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매번 흐지부지돼 왔다.

하지만, 전자 거래가 이미 글로벌 추세로 굳혀진 데다 역내 달러/원 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 관점에서 전자 거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API 도입 필요성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9 년 보고서에서 2016 년 대비 NDF 거래가 2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를 이끈 주요 통화 중 하나로 원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전자 거래를 이에 대한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BIS 는 역외 시장에서 참여자들 간 달러/원 거래가 2016 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역내 은행 간 시장의 달러/원 현물 거래량(일평균)은 2016 년 83 억달러였던 반면 2019 년에는 69 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렇게 역외 시장은 커지고 역내 시장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도 글로벌 추세와 보폭을 맞출 필요성이 부각된다.

A 시장 관계자는 "과거 역내 시장으로 들어왔던 일부 물량들이 전자 호가가 기반이 된 NDF 시장으로 넘어갔다"면서 "만약 스팟이 연결된다면 역외보다 유동성이 좋은 역내로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격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고객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도 API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각 은행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시장 호가를 보고 거래할 수 있어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진다.

B 시장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은행 간 시장 호가를 보여주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은 물량 또는 고객 크레딧 별로 다른 스프레드를 적용해 고객과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팟 시장의 API 도입은 작은 출발일 수는 있지만 원화의 전자 거래를 여는 첫 관문인 만큼 도입 범위와 방식 및 속도, 국내외 은행 간 형평성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시장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외환 당국은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외시협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외환 당국자는 "외시협을 통해 이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은 시장 주도하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 스탠스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다.

C 시장 관계자는 "당국도 글로벌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을 대폭 확대시킬 뜻밖의 변수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시장과 당국의 API 관련 논의는 올해 남은 기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입 여부와 범위는 국내외 시장 여건을 비롯한 시장 논의 속도에 달릴 전망이다.

(외환시장 변혁기 ②)-API 도입으로 치열해질 시장 주도권 경쟁..기울어진 운동장?

※ 이 기획은 총 3 건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원화 전자 거래의 포문을 열게 될 API 도입이 이뤄지면 국내 외환시장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은행 간 시장의 호가 정보가 은행별 대고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투명성 향상, 비용 감소 및 편의성 증대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는 효과도 있다.

그간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고민해 온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이같은 논의를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지난 2005 년 한국은행은 은행 간 시장의 실시간 최적호가와 체결가를 은행 간 시장 참여 은행에게만 제공하기로 해 기업체와 개인, 역외 거래자 등은 은행 간 시장의 호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된 환율 호가 방식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역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면서 환율 쏠림을 야기한다는 논리가 당시 적용됐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물론 각 은행이 중개사를 통해 받은 실시간 시장 호가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제시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최대한 경쟁력 있는 호가를 고객별로 제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격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기관들의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달라진 형태의 경쟁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여기에 다소 민감한 논쟁거리가 있다.

▲ 달리고 있는 자와 시작하려는 자

국제 외환시장에서 전자 거래화는 이미 보편적인 추세다.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내에서는 전자 거래에 대한 원칙이 이미 많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그만큼 다른 통화에 대한 외국계 은행들의 전자 거래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이같은 추세에 보폭을 맞추려는 국내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A 시장 참가자는 "중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를 각자의 프라이스 엔진에서 가공해 시장 변동성, 고객, 규모, 이벤트 등 각각의 상황과 기관 특성에 맞게 고객들에게 맞춤형 가격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술력의 싸움이 될 텐데 국내 은행들의 경우 싱글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자동 헤지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거래 기법이나 전략을 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이와 관련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이제부터 준비에 나서는 곳도 있다. 물론 이미 완성된 플랫폼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각 은행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

이에 당국도 외은과 국내 은행 그리고 국내 은행 간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시장 질서가 재편되면서 국내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출발선에 서기 시작한 국내 은행들에게 당장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 뜨거운 논쟁이 뒤따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당국의 원화 전자 거래화에 대한 허용 범위와 도입 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B 시장 참가자는 "국내 은행들의 경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반면 외은들은 이미 노하우와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 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변혁기 ③)-글로벌 추세 따라갈 원화..득과 실은

※ 이 기획은 총 3 건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시기가 문제일 뿐 플랫폼을 통한 전자 거래가 대세인 글로벌 추세를 국내 외환시장만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관점에서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API 도입 가능성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진정한 전자 거래 활성화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달러/원 스팟 API 도입을 토대로 국내 은행들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외환거래 활성화로 글로벌 추세와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수 있는 한편 이미 플랫폼이 갖춰진 외은들은 헤지펀드와 역외 투자자들 물량을 일부 흡수해 시장 영향력을 키울 여지도 생긴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내 플랫폼 영업이 자리잡게 되면 현재 대고객 영업인력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자동 헤지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이 가능해진다면 인터뱅크 딜러마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시장 변동성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박 논리도 있다.

A 시장 참가자는 "역외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 등에 일중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면서 "오히려 시장을 크게 만들어 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그랬듯이 스팟 시장도 이제 다른 메커니즘을 가져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물론 달러/원 스팟 API 도입 관련 논의는 큰 틀에서 전자 거래 범주에 들지만 당장 NDF 를 비롯한 전면적인 전자 거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B 시장 참가자는 "NDF 전자 거래 허용 없이 스팟 거래 허용만으로는 유동성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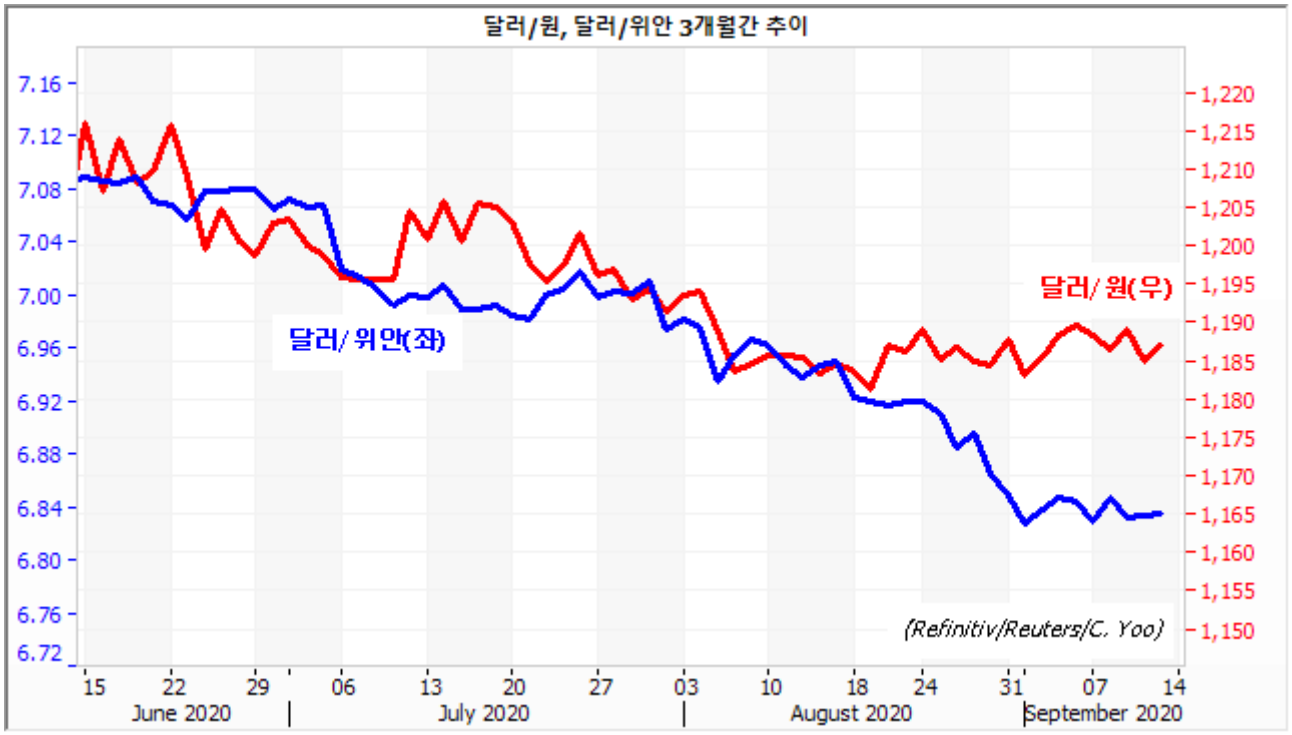
현재 시장 참가자들 간에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NDF 달러 거래 허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현물환 시장의 API 도입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너무 앞서나간 얘기일 수는 있지만, 원화가 전자 거래라는 글로벌 추세를 결국 따라야 한다면 플랫폼 경쟁 속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멀티 플랫폼 구조에서 원화 주도권이 역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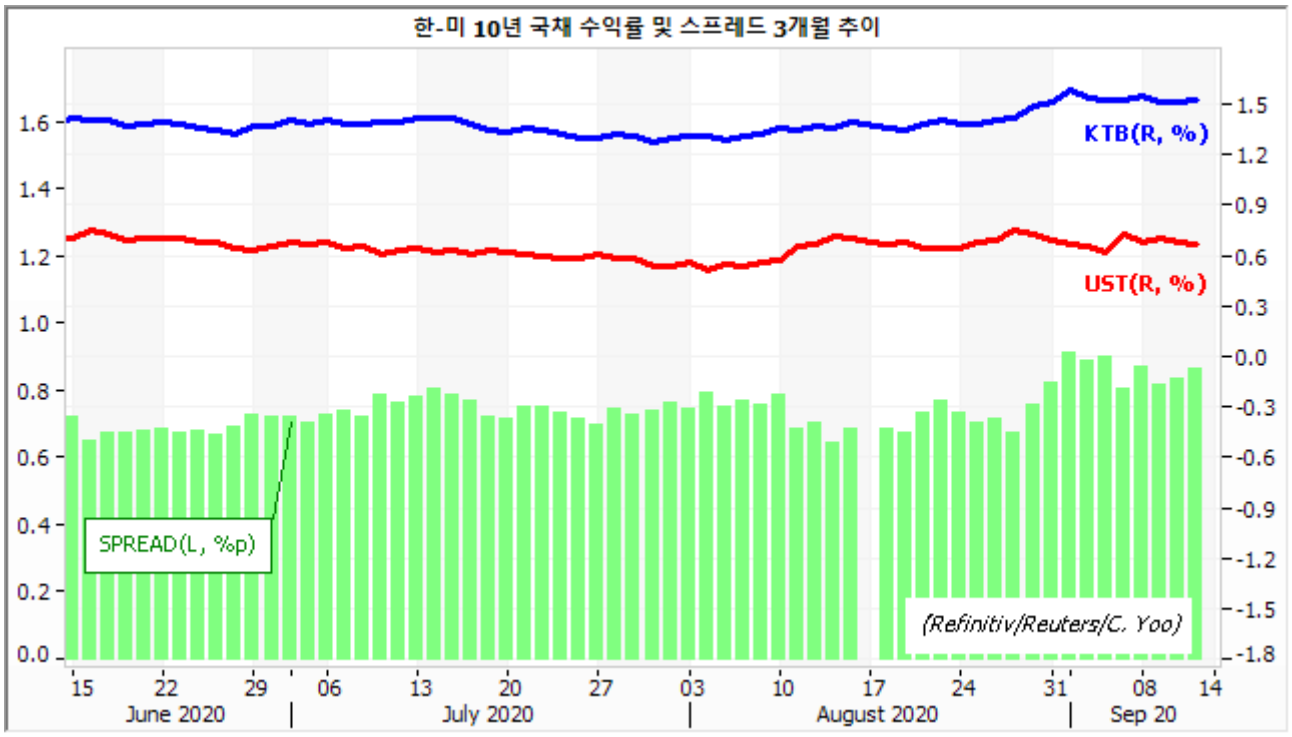
C 시장 참가자는 "국내 은행들이 싱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큰 기업들의 영향력 있는 물량은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모이는 멀티 플랫폼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환율은 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확대될 텐데 환율의 변동성 문제는 이전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